

2015년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

민족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 세대의 비교

▶ 일시 : 2015년 9월 14일(월) 14:00~17:00

▶ 장소 : 서울 명동 이비스 앰배서더 19층 회의실

워크숍 일정

-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14:00~17:00
- 장 소 : 서울 명동 이비스 엠베서더 19층 회의실
- 주 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간	진행내용
사회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0~14:40	<p>▣ 주제발표</p> <p>민족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 민 병 갑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i>COFFEE BREAK</i>	
15:00~16:30	<p>▣ 토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허 영 식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 하 혜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강 복 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사업본부장) ▶ 김 재 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팀장) ▶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30~17:00	▣ 종합토론

목 차

주 제 발 표

- ▶ 민족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 세대의 비교 5
민 병 갑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토 론 자 료

- ▶ 토론문 31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대한 토론자료 37
허 영 식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 ▶ 다문화 청소년의 수치정체감 43
하 혜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성과와 과제 51
강 복 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사업본부장)
- ▶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81
김 재 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팀장)

주제 발표 요약문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
서로 다른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집단 비교**

민병갑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주제 발표 요약문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 서로 다른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집단 비교

민 병 갑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1. 한인 민족정체성은 1.5세나 미국 출생 한인들이 자기가 “한국계 미국인 (Korean American)”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함.
2. 인종 정체성은 주류 백인사회에 의해서 강요되는 칭호, 예를 들면, “흑인,” “아시아인” 및 “중국인”인데 비해, 민족정체성은 본인이 어느 민족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의식하는 정도를 말하며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3. 젊은 세대 한인들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 (1) 외부 (미국사회) 요소 (External Factors)
 - a. 인종차별
 - b. 미국정부의 동화주의 vs. 다문화주의 정책
 - (2) 한인사회 안의 요소 (Internal Factors)
 - a. 한국문화 전통유지 (retention of Korean Culture)
 - b. 한인사회 사회관계망 (Korean social networks)
 - c. 모국의 문화, 정치, 경제, 외교적 힘과 모국과의 관계
4. 자료
 - (1)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젊은 세대 (1.5세나 2세) 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관해 쓴 에세이 (3편)과 그들과의 개인 인터뷰 (16명)
 - (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젊은 세대 한인이 자기 정체성 형성에 관해 쓴 에세이 (10편)

5. 정체성 형성에 관한 한인 두 집단 비교

- (1) 1960년대와 1970대 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젊은 세대 한인들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해서 백인들이 칭하는 “동양인 (Orientals),” “중국인,” “일본인” 등의 인종적 칭호를 강요받음; 또한 그 당시는 한인커뮤니티가 인구 규모나 사회연결망이 아주 작아서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도,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주 힘들었음; 또한 모국의 힘이 약하고 국제적 인지도 역시 부정적이어서 젊은 세대 한인들은 자기가 한국인임을 숨기려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소수민족정책이 동화주의여서 한국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음; 이러한 내외적 요소의 결합으로 그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젊은 세대 한인들은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겪었다. 자기가 백인인척하고 한국인 배경을 숨기려 했지만 외관상으로 백인과 다르므로 자기 배경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성장해서야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찾으려 했다.
- (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자란 젊은 세대 한인들은 위에 설명한 다섯 가지 요소 모두에 있어 민족정체성 형성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한인커뮤니티가 커져서 한국문화 전통을 배우는 것이 쉽게 되었으며,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게 되었다. 또 미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이 동화주의로부터 문화복수주의 (multiculturalism)로 바뀌어 학교에서나 거주지역에서 한국문화 공간이 넓어진 것도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이 현저히 줄어들어 “아시아인”이나 “동양인”이라 인종 칭호를 강요받는 일도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 대에는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후기 젊은 세대 한국인들은 모국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결과로 이들은 20여년 전후의 젊은 세대 한인들보다 민족정체성 형성이 더 순조로웠다.

6. 위의 다섯 가지 민족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요소를 고려해 볼 때, 2010년대에 자라나는 1.5세 및 2세 한인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자란 한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한인 어린이들은 잘 정비된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으며,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의 노래, 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계와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한인교회나 한인단체에 소속되어 한인 친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미국의 다문화 정책으로 한국계 어린이들이 한국문화 활동을 하기가 더 쉬워졌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전보다 훨씬 높아져서 젊은 세대 한국인들은 이제 모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오늘을 사는 많은 2세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에 자기는 “한국계 미국인 (Korean-American)”이라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주제 발표

.....

**민족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 세대의 비교**

민병갑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민족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 세대의 비교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사회학과
민병갑

2015년 9월 14일

1. 연구의 필요성

- 젊은 세대 한인들의 미국 사회 및 한인 커뮤니티 진출
- 젊은 세대 한인에 관한 중요한 연구 과제
 - (1) 학교 성적
 - (2) 사회·경제적 적응
 - (3) 민족 및 인종 정체성

- 젊은 한인 및 타 아시아 젊은 세대의 민족 및 인종 정체성에 관한 몇 가지 연구 (Danico 2007; Kibria 2002; Min 2002; Min and Kim 1999; Tuan 1998)
- 하지만 시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자란 두 젊은 세대 아시안에 대한 비교 연구는 없음
- 다른 시기에 자란 두 Cohorts을 비교함으로써 인종 및 민족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시대적으로 변함에 따라 민족 정체성 확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 수 있음

2. 주요 목적

- 젊은 세대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자 함
- 네 가지 요소의 차이에 기인하여 두 시기에 자라온 한인 2세들이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됨을 보여줌
- 젊은 세대 한인 2세들이 직접 쓴 에세이를 통해 두 시기에 네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달리 작용했음을 보여 줌

※ 편의를 위해 다른 두 시기의 젊은 세대를 Cohort 1, Cohort 2 로 칭함.
1960년대-70년대 초 젊은 세대 (Cohort 1) ,
1980년대-90년대 초 젊은 세대 (Coho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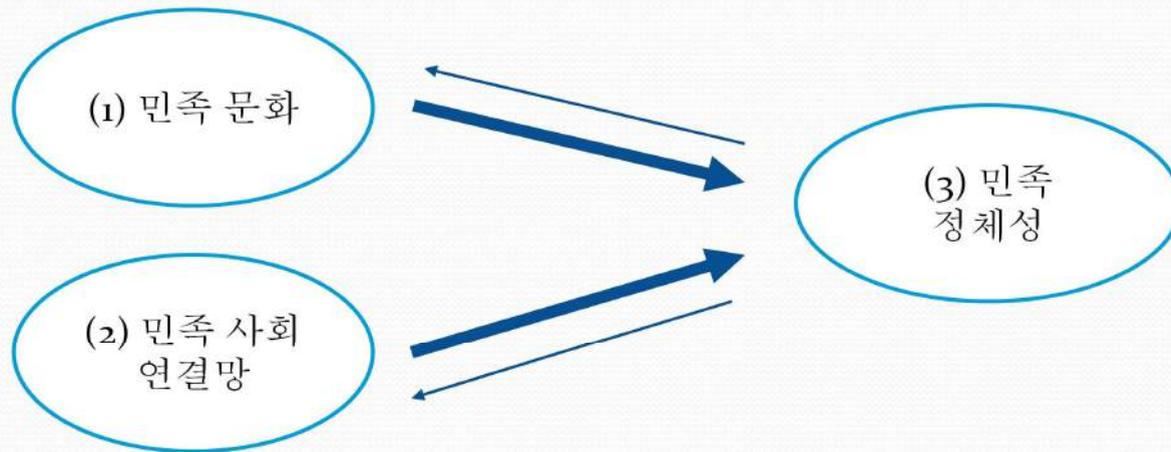
※민족 및 인종 정체성의 기본적인 차이점

인종 정체성- 주로 신체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백인사회가 특정한 소수인종에 대한 카테고리에 꼬리표를 다는 것 (“흑인”, “아시안”, “동양인” 등); 소수 민족 구성원 자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사회에 의해 **강요된 것**; 특히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칭호는 미국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변치 않는 인종 칭호임; 백인의 인종차별은 소수 민족의 인종 정체성에 결정을 역할을 함

민족 정체성- 소수 민족 구성원 자체가 자기의 문화 배경과 모국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인식; 민족 정체성은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제하지 않음 (예: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등); 민족 정체성은 성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과 공존할 수 있음

3. 민족성 (Ethnicity) 의 세가지 요소

- (1) 민족 문화 (Ethnic Culture)
- (2) 민족 사회 연결망 (Ethnic Social Networks)
- (3) 민족 정체성 (Ethnic Identity)



4.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

- (1) 민족 문화 보존 (Retention of Ethnic Culture) : 언어, 미디어, 음식, 축제, 음악, 미술, 종교 등
 - (2) 같은 민족 친구를 사귀는 것과 민족 단체 활동 (교회, 청소년 단체 등) 에 참여하는 것 (Participation in Ethnic Networks and Ethnic Organizations)
- (1) & (2)는 자기 커뮤니티의 인구의 크기와 사회단체 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됨
 - 미국의 한인 인구는 1970년에 7만 명 미만에서 1990년에 80만 명 이상으로 증가
 - 한인 교회는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와 한인 친구를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됨. 하지만 개신교는 기독교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신앙이 강하면 한인 정체성이 약화되는 경향도 있음

(3) 모국과의 연계 , 모국에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지는가, 또 세계에서 모국의 영향력과 위상

- 모국과의 초국가적 연계
- 한국에서 젊은 세대 한인들이 진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혹은 거부되었는지의 경험
- 경제, 문화, 외교 및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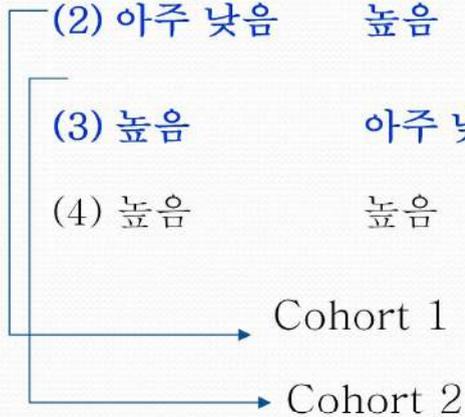
※ 위에서 말한 (1), (2), (3) 세가지는 젊은 세대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내적인 요소임

(4) 인종 편견이나 차별에 관한 경험 (외적 요소)

- 민족 정체성은 본인이 선택하지만, 인종 정체성은 정착 국가의 인종 서열에 기초를 두고 주어진 것임
- 미국에서 비 백인 즉, 비 유럽계의 자녀들은 완전한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특히 흑인들은 미국에서 10세대 이상을 살았지만 여전히 “미국인”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흑인” 으로 불림. 아시아계 소수민족은 지난 25년 동안 높은 교육 배경을 가지고 학교, 직장 및 거주지에서 백인층과 자주 접하기 때문에 미국인으로 점점 더 수용되는 추세임
- 특정한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은 민족 및 인종 정체성의 외적인 요소가 됨

5. 내적 요소 (3가지)와 외적 요소 (1가지)의 차이에 기인한 민족 정체성의 네 가지 형태

내적 요소	외적 요소	민족정체성 형태	예
(1) 아주 낮음	아주 낮거나 전무	“American”	어려 백인 민족들
(2) 아주 낮음	높음	약하거나 부정적인 민족정체성 형성	1970 이전 아시아계 2세
(3) 높음	아주 낮거나 전무	한국계 미국인 / 유태계 미국인	미국의 유태인
(4) 높음	높음	독립된 민족 정체성	Black Nationalists



- 오늘날 자라나는 젊은 세대 한인들은 Cohort 2 보다 민족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에 있어 훨씬 유리함

6. 자료 (1.5세 및 2세 한인들이 쓴 자전적 에세이)

- (1)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자라온 Cohort 1~3명의 젊은 세대 한인들이 쓴 자서전적 에세이 (민& 김이 편집한 책, *민족 정체성을 위한 투쟁(Struggle for Ethnic Identity, 1999)* 및 민이 편집한 책, *북미의 한국인(Koreans in North America)*에 포함된 린다 박(Linda Park)이 쓴 챕터(2013) (16명의 인터뷰 자료).
- (2)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 자라온 Cohort 2- 민 &정이 편집한 책, *미국 젊은 세대 한국인의 경험: 민족 및 인종 정체성에 대한 개인 이야기 (Younger-Generation Korean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 Narratives on Ethnic and Racial Identities)* (2014)에 포함된 10편의 젊은 세대 한인이 쓴 자서전적 에세이

(3) 자전적 에세이는, ‘(a) 민족문화 유지, (b) 한인친구와의 교제, (c) 모국과의 관계 및 모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의 경험, (d) 학교나 이웃, 직장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경험, 그리고 (e) 본인이 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지게 된 정신적 갈등’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음

7. 인종 차별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신적 갈등을 나타내는 에세이의 구절 인용 (“백인 행세:Acting White”)

(1)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자란 Cohort 1 의 에세이 (민 & 김의 1999 년 서적)

“나는 친구들과 웃고 얘기하면서 거울 패널이 장식된 나의 고등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 구역을 지나치는 짧은 순간, 거울에 비친 친구들과 사이의 내 모습을 보았다. 친구들과 내 외모가 얼마나 다른지 갑자기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얼굴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나 또한 백인이고 믿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의 순간, 내가 필연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온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무시했던 것은 소용없었으며 어리석은 짓이었다. 어딘가 소속되어 남과 어울리고자 했던 욕망이 스스로를 실제 백인이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쓰 정(Ruth Chung) (남가주대학 교수)

- “나의 중학교 시절 경험이 불편해지는 만큼, 나는 몇 가지 이유로 백인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대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백인 학생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히 우리 반의 아시아와 라틴계 친구들을 무시했다. 나는 학교 행사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으며, 학교 도서관에서 점심시간을 보냈다. 몇 년 뒤, 이러한 감정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은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자신의 인종차별주의 원형과 똑 같았던, 내면화된 인종차별(internalized racism)에 대하여 읽었을 때, 나는 마침내 나의 과거와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 로즈 김(Rose Kim) (맨해튼 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

(2)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Cohort 1 - 린다 박(Linda Park)의 북 챕터 (2013)

미국인으로서 거부당했던 경험

“나의 여동생이 오하이오의 학생회에서 반장과 같은 임원에 출마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캠페인 포스터에 ‘진주만’이라고 낙서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그것이 매우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역 자체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다.”

“넌 뭐야?”라는 질문을 분명히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뭔가를 차별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가지 않았다. 내가 영어를 매우 잘 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돌아 갈거야?”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무뎌져 갔지만 나는 그 후로 점점 더 인지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분명했다.

- 문화적 차이로 한국인과 한국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경험

“어느 여름날 밤, 한국에서 학교 귀가 길에 한국계 미국인 소녀와 영어로 대화하며 가던 도중 술 취한 한국인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는 나에게 ‘왜 한국어로 말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우리는 싸우게 되었다. 나는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끝까지 매우 공격적이었다. 매우 짧은 언쟁이었다. 친구가 나를 끌어 당겨 떼어 놓았고, 그 남자는 주위의 병을 던지고 있었다. 그것은 미친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언젠가 한국에 갔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택시 기사는 내가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의 요점은 ‘내가 한국인으로 보이는데 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가?’였다.”

- 왜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는가??

“나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도록 양육되지 않았다.

부모님은 종종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곤 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영어로 말했다. 그것은 부모님의 결정이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영어를 완벽히 마스터하기를 원하셨는데, 두 언어를 우리에게 모두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영어 이해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자란 Cohort 2

- 10대 젊은 세대 한국계 미국인의 2011년 개인 수필에서

(보다 미묘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경험

“금발과 갈색 머리의 아이들이 가득한 교실에서, 나는 직모와 찌진 눈을 가진 유일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내가 웃을 때 왜 눈을 감냐고 묻곤 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일 수 있으나 나에게는 큰 일이었다. 그 아이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즉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나를 영원히 표시할 어떤 것으로, 나를 따돌렸다. 나는 처음에 울면서 집에 가곤 했다.” 브렌다 정(Brenda Chung) (주부)

- “전반적으로, 미국 언론에서 아시아인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묘사되지는 않는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점원이 나에게 영화 행오버(The Hangover)에 나오는 남자를 닮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 영화의 대사를 읊어줄 것을 강요했다. 나는 그를 회유하는 대사를 읊었다. 나는 이 일이 굴욕적이기보단, 짜증스럽고 전형적인 일반 미국인의 무지한 행동이라고 여겼다.” 데이브 한(Dave Hahn) (통신사 직원)

- “내가 이미 일년 이상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 한 명이 회사에 입사했다. 그녀와 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했으며, 완전히 다른 체형, 헤어스타일, 목소리를 가졌는데도, 동료들은 우리 둘의 이름을 혼동하고 바꿔 불렀다. 우리 둘 다 몇 번이고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었지만 똑같았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 화가 났고, 내 매니저와 이 일을 해결하려 했다. 그의 바디랭귀지로 보아, 나는 금새 그가 이 대화를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악의로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시했다.” 성 박(Sung Park) (UCLA 박사과정 학생)

- “흑인인 나의 학생들 대부분은 나의 삼촌이 유명한 중국 무술가 이소룡이라고 늘 놀려댔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소룡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한국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는 동안에도, 내 학생들은 종종 나를 '중국인의 눈을 가진 백인 여성' 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러나 나의 백인 동료 및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그들 중의 하나로 보지 않았다. 나는 내 유창한 영어 구사로 내 동료들의 칭찬을 받았고 (정말) 내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호기심 섞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 헬렌 리(Helene Lee) (사립대학 교수)

- 2002년 월드컵 동안 두 번째 cohort 구성원 중 한국에서 긍정적인 경험

“나는 내가 얼마나 빨리 한국을 나의 팀으로 받아들이는지 놀랐다. 전 생애를 미국에서 살았으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경기할 때 조차 한국팀을 응원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밤,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에 참석했다. 붉은 악마팀이 전력이 강한 포르투갈팀을 이겼고, 다음 회전으로 진출하였다. 그날 밤 전국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사람들이 행진하고 노래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부모님과 조상의 나라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고 외칠 때, 마치 꿈의 세계를 걷는 것 같았고, 진실로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토마스 정(Thomas Chung)



감사합니다!

토론자료



토론문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글은 민병갑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보다 재미한인 청소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을 논의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1. 이중정체성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중정체성이다. 대부분의 1.5/2세는 자신들의 이중정체성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1.5세와 2세는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바가 다르다. 1.5세가 한인 정체성이 미국인 정체성보다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2세는 미국인 정체성을 더욱 크고 중요한 자아의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5/2세는 공히 자신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들로부터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한인 또는 아시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 정주의식

1.5/2세의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는 재일한인의 在日(Zainichi) 정체성과 같이 미국에 정주한다는 의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고, 기회와 권리가 주어지며, 그에 따라 책임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미국이 정주할 곳이라는 의식이 자리잡아가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특히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편에서 보게 된다. 이는 1.5세보다 2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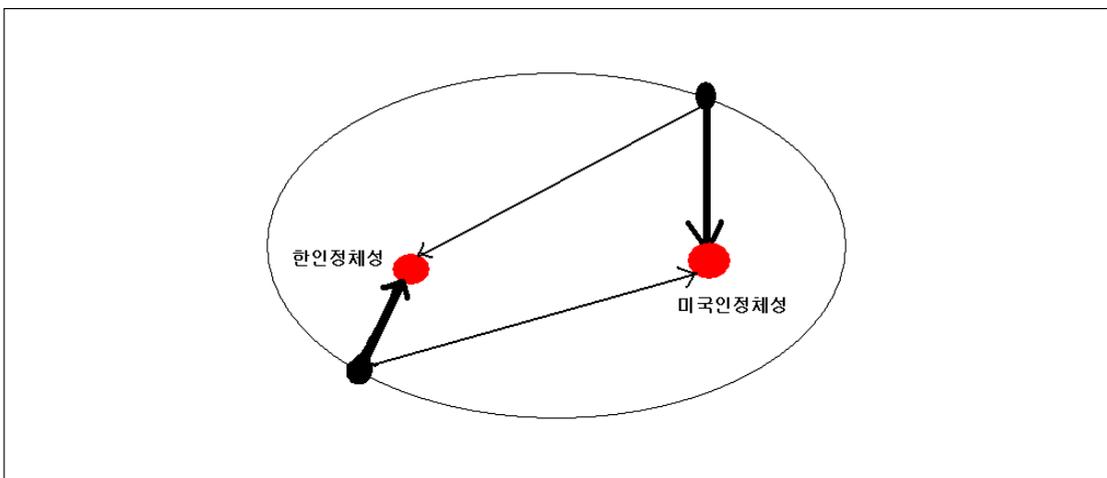
3.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충돌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서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은 항상 조화롭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충돌하고 위계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한인에게 한국문화,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문화와 미국 주류사회에 비교해서 주변적이고 이류로 취급되기 쉽다.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 없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자라난 2세의 경우에 ‘한국적인 것(Koreanness)’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기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4.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다핵이론

1.5/2세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의 관계를 상호 배타적이고 갈등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둘 중의 하나의 정체성이 현저해지고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민족정체성 다핵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 따르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는 한인 정체성과 미국인 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핵(또는 중심)이 있는데, 개인은 이 두 개의 핵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마치 행성과 같은 존재이다. 그가 한인 정체성이 보다 적합한 상황에 처하면 한인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반대로 미국인 정체성이 더욱 적합한 상황에 처하면 미국인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림 1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다핵이론



5. 한인정체성 형성과 발전의 나비효과

한 가족 내의 자녀들 간에 한국어 능력, 언어사용 패턴, 친구관계, 민족정체성과 애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각자가 한국과 한국적인 것(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인 등)에 대해 가진 태도, 성향, 친근성 등이 점차 확대 증폭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차이로 발전하게 된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불리는 이 현상으로 인해 자녀가 어렸을 때 한국과 한국적인 것(Koreanness, 예를 들어,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에 갖는 태도와 성향이 이후의 사회관계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 능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렸을 때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녀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기초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다 심화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는 부모가 시청하는 한국 TV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그는 한인 교회에 다니고, 한인 친구와 사귀고 친구들과 한국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해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반면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글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TV 드라마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한인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한인 친구를 사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적인 것과는 담을 쌓고 대신 미국인과 교제하고 미국 주류문화만을 접하면서 미국화 되기가 쉽다. 이렇듯 초기에는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좁혀질 수 없는 큰 차이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의 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한국어,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해 친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론 자 료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대한
토론자료**

히 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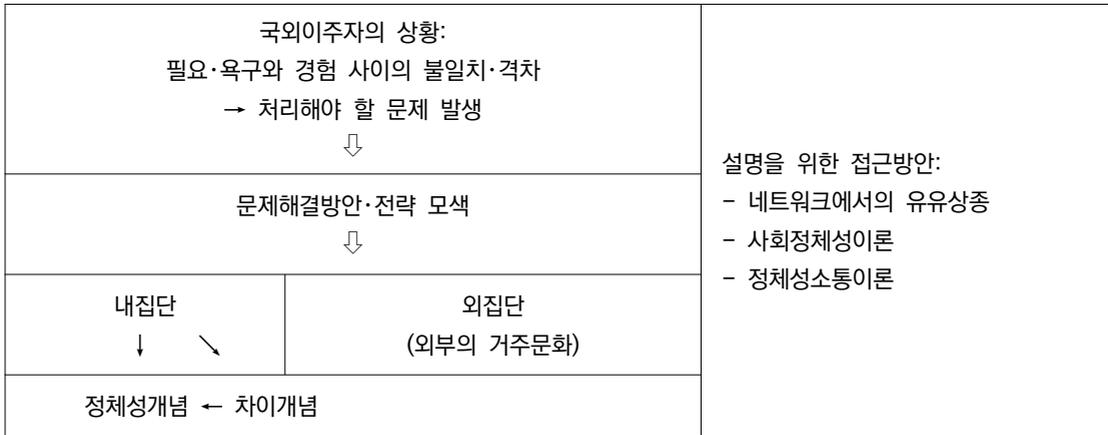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대한 토론자료

허영식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1. <젊은 세대 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 서로 다른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두 집단 비교>의 주제에 관한 발표문에 따르면, 젊은 세대 한인들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다섯 가지 요소(한인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외부요소 두 가지와 내부요소 세 가지 포함)를 거론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정체성 형성에 관한 한인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다. 비교분석의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자란 젊은 세대 한인들은 20여년 전의 젊은 세대 한인들보다 민족정체성 형성이 더 용이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 다섯 가지 요소에 비추어 볼 때, 2010년대에 자라나는 1.5세 및 2세 한인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자란 한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을 사는 많은 2세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이픈 정체성(즉, 하이픈으로 연결된 외국계 시민의 정체성; hyphenated identity)'의 의미에서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결론과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2. 상기한 발표문의 내용 및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준거 혹은 모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구성과정



출처: Kraemer, 2009: 213; 허영식·정창화, 2012: 19 재구성

세계화와 국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국외이주를 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외이주자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 제도와 네트워크를 갖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밀접한 상호관계와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외부적으로는 다른 거주문화에 대하여 다소 거리를 유지하면서 구획(경계 짓기)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도식화한 상기 모형은 국외이주자 공동체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체성구성이 국외이주자의 생활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이론적 접근방안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형은 국외이주자의 생활상황과 필요·욕구의 상태, 그리고 이것이 수반하는 귀결(처리해야 할 문제 발생, 문제해결방안·전략 모색)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이론적 접근방안(네트워크에서의 유유상종(類類相從), 사회정체성이론, 정체성소통이론)을 포함한 상태에서 국외이주자 공동체의 전개과정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체성개념과 차이개념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차이개념(외부의 거주문화에 속한 구성원에 대한 표상과 심상을 의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도 역시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모형에서는 차이개념에서 나온 화살표(↔)가 정체성개념을 가리키고 있다.

3. 상기한 모형에 덧붙여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서 '인정투쟁'의 관점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독백적인 것이 아니라, 대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화·종교·민족·생활방식에 속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정투쟁’을 염두에 둔 ‘인정의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특정한 집단이나 생활형식에 속하는 것이 더 이상 열등감과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금지와 자아존중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놓여 있다. 그러한 인정투쟁의 목표는 예를 들면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슬로건에서 표현된다. 이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는 운동은 유색인종으로 하여금 그들의 피부색을 더 이상 열등의 표시가 아니라 금지의 표시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의 투쟁에 있어서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개인이 집단정체성에 종속되고, 집단정체성의 유지·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정체성의 대화적 성격은 한쪽의 극단을 향해 해체되고 만다. 그런데 자기결정에 대한 개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위험한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소위 ‘인정의 정책’이 사람을 집단정체성에 고착시킬 경우 개인의 자율성을 상당히 혹은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정체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개개인이 그 집단정체성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 사이의 긴장관계와 변증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고려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허영식·정창화. 『간문화성과 한국의 정체성』. 서울: 원미사, 2012.

허영식·정창화·최치원·김진희·게오르크 바이세노. 『한국의 정체성 재정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간문화주의와 다양성관리』. 서울: 박영스토리, 2014.

Kraemer, M. “Identitäts- und Differenzkonzepte deutscher und japanischer Expatriates. Empirische Ergebnisse und theoretische Grundlegungen.” Moosmueller, A. (ed.). *Konzepte kultureller Differenz*. Muenster: Waxmann, 2009, pp. 211-230.

토론자료



다문화 청소년의 수치정체감

하혜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다문화 청소년의 수치정체감

하혜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국외에서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의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민족 및 인종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자란 젊은 세대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인상적이며, 민족정체성 확립이 세대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종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민족성의 세 가지 요소인 민족문화, 민족 사회 연결망, 민족 정체성의 관계를 제시하고,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요소인 민족문화보존, 민족 단체 활동, 모국과의 연계, 인종 편견이나 차별에 관한 경험을 구분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내적요소 3가지와 외적 요소의 차이에 기인한 민족정체성의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한 점은 앞으로의 다문화 연구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사회라고 할 만큼 최근 급격히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상담전공자로서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수치 정체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 청소년과 편견

다문화사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 나라의 형태로 사회통합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익숙하며, 두 번째는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세계화에 따라 이주 노동자와 이질 문화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하는 형태로서 전자에 비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나 인식이 부족하다(김남국, 2005). 우리나라는 두 번째 형태와 유사한 상황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나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 문제로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박상철, 2008).

2014년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67,806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를 학교급 별로 살펴볼 경우, 초등학생이 71.2%, 중학생이 18.5%, 고등학생이 10.3%로 초등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4). 그런데,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취학 학생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집단이 되어 주변의 편견 속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김인, 2009; 변은주·심혜숙, 2010).

일반적으로 편견이란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단순히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인해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회집단이나 범주에 대해 편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그 구성원을 단지 그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때 개인적인 특질이나 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단지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이훈구, 1995). 다시 말해서 편견은 적절한 사전 지식이나 사고 또는 이성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태도나 의견 혹은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Sechrist & Stangor, 2002), 이러한 편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선호 또는 적대감을 갖도록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내재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함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근로이주자, 유학생, 새터민 등의 다문화 가족이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학대

우리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관념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던 집단범주는 인종이나 성, 지역집단, 직업계층 등이었다(이재창, 2001).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경우 이러한 부정적 낙인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특정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특성을 사회적 오점(social stigma)라고 한다(Goffman, 1963).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나 고정관념, 편견 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오점 보유 집단 중에서 오점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들의 태도의 정도는 달라지는데 오점의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는 가시성과 통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Frable, Blackstone, & Scherbaum, 1990). 오점의 가시성은 오점이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오점의 통제성은 오점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오점의 유형에 따라 주변의 반응뿐만 아니라 오점 보유자들의 심리적 대응과정도 달라진다. 다문화 청소년과 같이 가시적으로 쉽게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오점을 감출 수 없는 경우 상호작용 과정에서 배척당하거나 심리 내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1) 의도적 학대와 비의도적 학대

이러한 주변의 고정관념과 편견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학대'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학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린다. 그렇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대를 의도적 학대 또는 능동적 학대라고 부른다. 즉, 상대방에게 언어, 정서, 신체적으로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의도적 학대는 학대하는 사람이나 학대당하는 사람 모두 학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의도적 학대 또는 수동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배제하거나 폄하하는 등의 상호작용 과정이 학대가 될 수 있다. 학대하는 사람은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이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은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문제로 아이들을 적절히 보살필 수 없어서 방치나 방임하게 될 때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이처럼 학대는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는 행위와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대와 관련된 사건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운데 성장하는 것, 여러 이유에서 무관심과 방치가운데 성장하는 것, 가난한 집, 배우지 못한 부모, 부부갈등으로 버려지거나 부모의 외도로 복잡해진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 중독·만성 질환·인격 장애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것, 완벽주의적인 부모, 소수인종, 과잉보호, 편애, 편견 등이다. 사실, 이러한 환경은 삶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비록 부모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필요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오점 집단범주에 속함으로 인해 이러한 학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수치정체감

1) 수치정체감의 메커니즘

이처럼 부적절한 환경 속에 오랫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수치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수치정체감(shame identity)이란,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나타내는, “나는 정말 바보 같다, 나는 못났다, 나는 내가 부끄럽다, 나는 남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 나는 어디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다, 나는 비참하고 형편없다” 등으로 표현된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발생하는 존재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김용태, 2010), 이러한 수치심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게 될 때 수치정체감이 형성된다. 수치심은 자신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발생된다고 보는데,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열등하다고 평가하게 된다(Reyles, 2007).

앞서 말한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이나 환경 자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러한 사건과 환경이 정체감으로 일반화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수치스러운 사건이 존재에 대한 규정으로 보편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치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 부끄러운 존재, 오점이 있는 존재, 더럽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수치심은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Gilbertt, 1992),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열등한 느낌, 숨고 싶은 느낌, 피하거나 자신을 억제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Wright & Gudjonsson, 2007). 수치심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나쁘다고 평가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Leith & Baumeister, 1998). 죄책감이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정인 것에 반해서 수치심은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Wright & Gudjonson, 2007).

이렇게 수치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까봐 두려움(fear)을 갖게 된다. 자신에겐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비밀이 있고, 오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노출될 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통제(control)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더욱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 론 자 료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성과와 과제

강 복 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사업본부장)

2015/ 9/14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성과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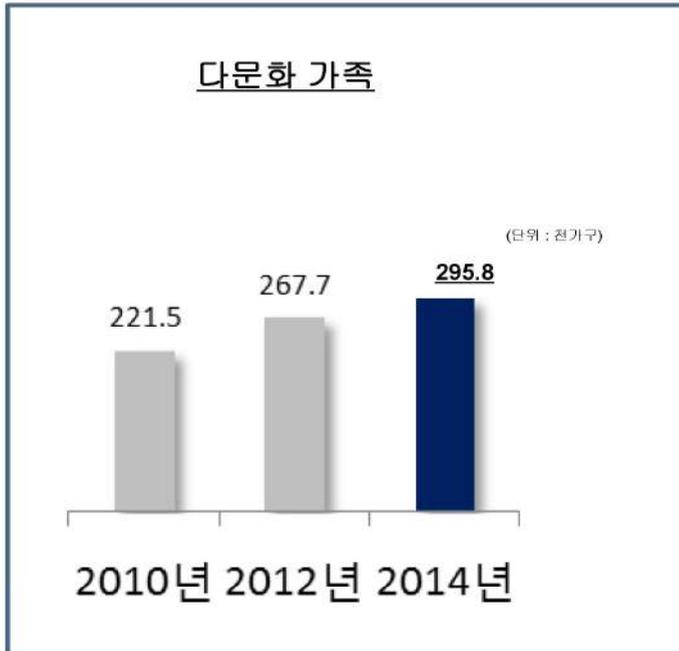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사업본부장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 다문화 관련 외부환경 분석: 사회·경제 환경

❖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중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증하던 추세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출처: 통계청

Issue & Implication

01

- '20년에는 결혼이민자가 약 35만, 자녀 30만, 배우자 35만으로 다문화가족 총 100만 예상

02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연령이 상승
- 중도입국청소년 증가

03

- 결혼이민자 취업욕구 증가
- 자녀 학습부진, 정체성 갈등
- 다문화가족의 다양화(이혼, 사별 등)



여성결혼이민자 정착과정의 특수성

-이민자 집단별 한국생활 초기 상황 차이

·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귀화자 집단 내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성이민자나 여성 그 외 귀화자에 비해 이주 이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보다 취약한 상태에서 한국생활 시작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

. 이주와 결혼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개인과 가족 내외부의 다중적 과제를 둘러싸고 보다 역동적인 정착과정 전개
. 자신과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주류사회 성원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적응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 가족 내에서의 차이의 조정이야말로 핵심적 과제로서 사회통합의 제반 측면에 결정적 영향 미침

-장기적 차원의 대응 필요

. 이주와 동시에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해가면서 정착과정을 원활히 밟아가기 위해서는 이주 이전부터 일정한 준비 필요
. 이주 이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착에 필요한 적절한 역량과 경험을 쌓아야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안정적 정착 가능

(여성가족부, 2013, 결혼이민자 정착 초기지원 프로그램 개편 방안 연구)

1. 다문화 관련 외부환경 분석: 사회·경제 환경

❖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 인식이 개선 중이나,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융화·수용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개발 및 발굴이 요구됨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겪는 한국생활의 어려움



※ 출처 :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_여성가족부

Issue & Implication

- 01 ● 단순 문화차이에 기인하는 어려움보다 빠른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언어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 02 ● 편견과 차별은 개선 중이나, 자녀양육 및 가족갈등과 같은 2차적인 어려움 발생
- 03 ● 초기 적응문제 해결과 함께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융화·수용되도록 정책 방향성 변화 및 강화 필요

정체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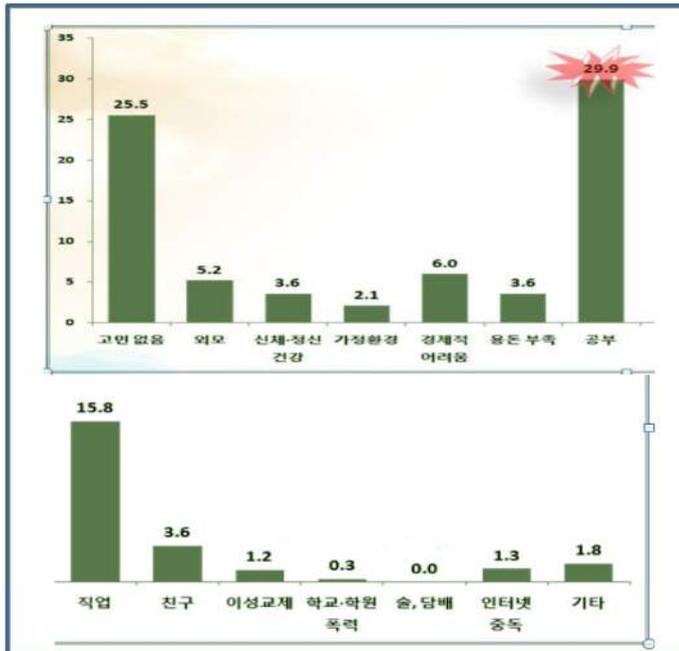
❖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의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친구관계가 위축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은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놀림과 따돌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인들과 외모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배경 부모 때문' 이라고 여기는 자녀들은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부모와 거리를 두거나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

❖ 외모, 종교, 언어, 등

1. 다문화 관련 외부환경 분석: 사회·경제 환경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 종류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Issue & Implication

01

- 자아정체성의 혼돈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성격

02

- 학습결혼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 부모님과의 문화적 갈등경험

03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성장가능성 저하
- 차별로 인한 대인관계형성 어려움

목표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 과제 [86]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7]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21]
-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 1-1. 상대방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1-2.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

-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2-2. 한국어능력 향상
-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 3-4. 피해자 보호

-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4-4. 사회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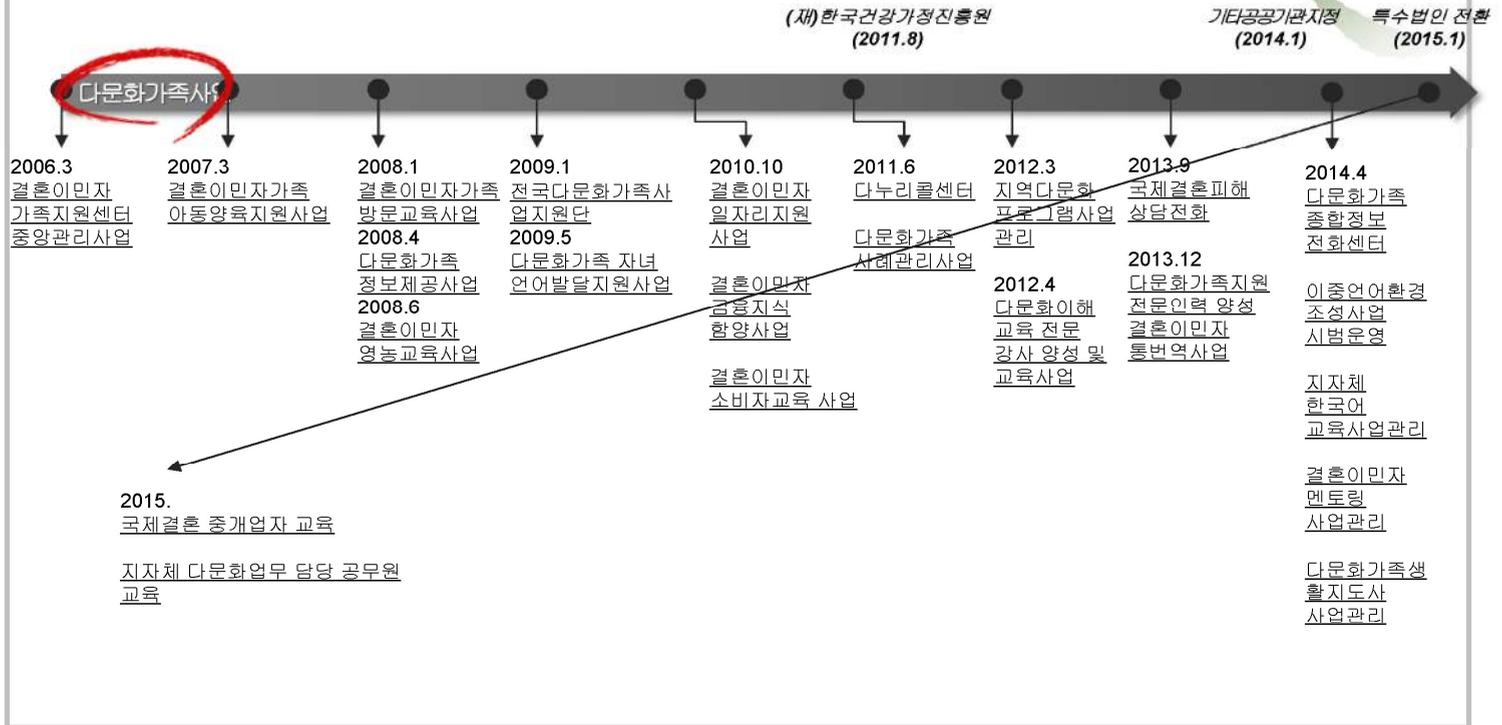
- 5-1. 인종, 문화 차별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 5-2.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5-5. 다문화가족의 입역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사업 운영연혁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 진흥원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및 연구, 가족·성평등·인권·사회통합 관련 다가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며,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 역량강화교육과 센터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함 **다문화가족 영역 사업 수행 현황**

수행 사업	역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멘토링 등	센터 및 시행기관 운영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보급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및 성과관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양성 및 교육	정보제공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다누리 콜센터)	홍보
다문화가족이중언어 환경조성	연구

※ 출처 : 연도 별 연간보고서 자료 종합_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보급 및 확산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다가센터·시행기관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다문화가족사업 중앙관리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 수행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

각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관리 중요성 증대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이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다수의 세부 개별 사업이 추진됨
- 이에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는 관리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제언 및 선도에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관련 서비스 분석 연구 수행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마련과 다문화가족 포럼 개최 등 정책공유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 및 정책확산 노력 지속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 수행(2014년)

연구 과제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특성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Ⅰ, 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정과제 개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자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방문교육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실증연구 수행
- 기존 제공 서비스 성과에 근거한 효과분석 연구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 신규 서비스 및 수요대상에 대한 세분화 등 서비스고도화 기반 제공
- 연구결과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다문화가족 포럼 개최



- 다문화 관련 전문가와 지역 센터책임자 간 현안이슈 공유 및 논의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가족지원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수요 및 요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반영 노력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지역 다가센터 개소 수와 이용자수는 2011년을 기점으로 확대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4년 한국어교육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함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역 다가센터 개소 수 및 이용자 수 확대 둔화

- 센터 개소 수 연평균 증가율
 - 2007년 ~ 2011년 : 51.5%
 - 2011년 ~ 2014년 : 1.8%
- 이용자 수 연평균 증가율
 - 2007년 ~ 2011년 : 55.4%
 - 2011년 ~ 2014년 : -18.1%

다가센터

- 2014년부터 한국어교육이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본사업에서 삭제됨에 따라 201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함
- 중장기적으로 센터에서 수행하는 신규 기본사업 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이용자 수 증대 필요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단위 : 명)

사업영역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한국어교육		746,541	773,190	765,660	(해당사항 없음)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424,955	497,091	504,812	486,618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181,272	178,509	169,779	161,511
상담		34,616	58,958	52,679	46,270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80,809	79,835	104,148	117,302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55,051	68,750	81,808	77,693
육아정보나눔터		97,999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개소 수	159	200	200	211	211
센터 이용 평균 인원	7,765	8,106	8,282	7,957	4,215
합계	1,234,670	1,621,243	1,656,333	1,678,886	889,394

※ 출처 : 건가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종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종합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전국 21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국비센터기준)에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 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지원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4. 12. 기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센터 개소 수	200개소	200개소	209개소	209개소
한국어교육지도사	1,787명	1,546명	1,453명	1,188명
가족생활지도사	1,848명	1,415명	1,465명	1,148명

방문교육사업 서비스 대상인원 현황(2014. 12. 기준)

연도	한국어교육	가족생활	
		부모교육	자녀생활
2011년	10,864명	8,398명	4,285명
2012년	10,140명	6,464명	3,721명
2013년	9,841명	6,220명	4,346명
2014년	8,627명	5,375명	4,649명

※ 출처 : 201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간보고서



방문교육지도사 전문성 강화

- 방문교육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양성교육 60시간 운영
- 연차별 보수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방문교육지도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체계적 방문교육지도사 평가체계 운영 및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한 방문교육서비스 전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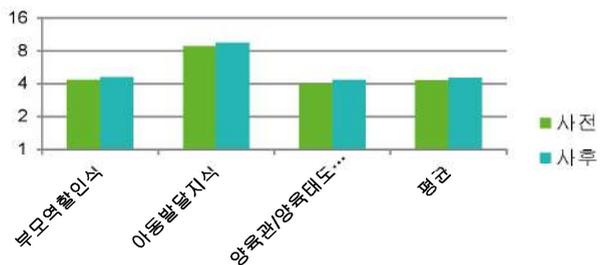
방문교육사업 추진기반 강화

- 방문교육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센터 현장지원 및 컨설팅
-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운영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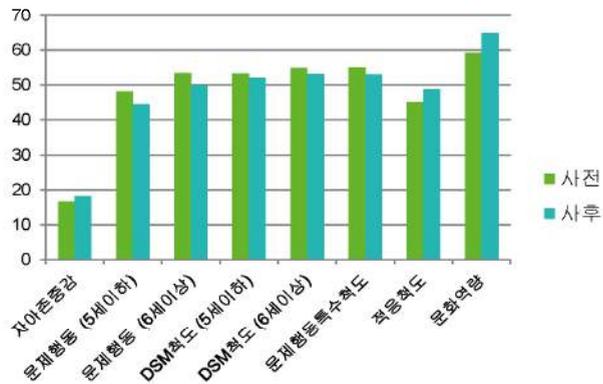
가족생활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분석 결과

방문교육사업 부모교육서비스 사전-사후검사 비교



구분	부모역할 인식검사	아동발달지식 검사	양육관/양육 태도검사	평균 점수
사전 점수	4.34	8.82	4.02	4.27
사후 점수	4.58	9.47	4.30	4.55

방문교육사업 자녀생활서비스 사전-사후검사 비교



구분	자아 존중감	문제 행동 (5세 이하)	문제 행동 (6세 이상)	DSM 척도 (5세 이하)	DSM 척도 (6세 이상)	문제 행동 특수 척도	적응 척도	문화 역량
사전 점수	16.7	48.1	53.5	53.4	54.9	55.0	45.2	59.2
사후 점수	18.2	44.5	50.0	52.1	53.2	53.1	48.8	64.9

※ 출처 : 다문화 가족생활 방문교육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2014)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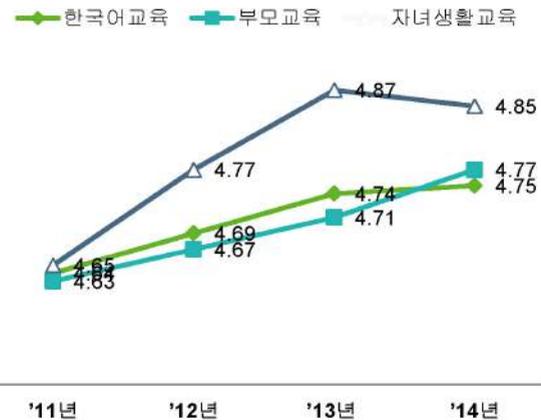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연도 별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현황

구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2011년	4.64	4.63	4.65
2012년	4.69	4.67	4.77
2013년	4.74	4.71	4.87
2014년	4.75	4.77	4.85

<방문교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 출처 : 연도 별 연간보고서 자료 종합_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전국 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례관리사 각1명씩 50명을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 적응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운영현황(2015.7.31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센터 개소 수	17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 현황(2015.7.31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관리	8명	429명	447명	251명
위기관리	37명	141명	139명	88명
통합관리	25명	626명	709명	404명
총계	70명	1,196명	1,295명	743명

* 출처 : 201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감보고서, 제334회 국회 임시회 대비 통계자료

사례관리사업 운영 성과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은 일반, 위기, 통합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유형별 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사례관리 운영
- 사례관리 대상자 목표에 맞는 지역자원연계 및 정보공유 통해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사례관리사 전문성 강화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역량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본교육, 심화교육, 거점별 소그룹 슈퍼비전, 공개 슈퍼비전 운영
- 사례관리사업 전문지식 함양 및 자원연계 발굴 능력 향상 교육 통한 역량강화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전국 5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각1명씩 55명을 배치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물리적·정서적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입국 초기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가족관리 서비스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운영현황(2015.7.31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센터 개소 수	55개소	55개소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서비스 이용자 현황
(2015.7.31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위기관리	609명	626명
주요활동	5,420건	8,047건
자원연계	1,702건	2,358건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사업 운영 성과

-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사소통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대상자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체계적 사례관리 운영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전문성 강화

-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기본교육 운영

※ 출처 : 201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간보고서, 제334회 국회 임시회 대비 통계자료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현안에 맞는 다문화관련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일반 국민 및 관련 공공기관 배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정보접근성 제고 및 사회인식 개선 노력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간행물	다문화가족 정보 매거진 (Rainb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제작 • 연4회 매회 6만부 발행 • 4,200여 개소 배포 • 13개 언어 제공
	리플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만부 3천여 개소 배포 • 13개 언어 제공
온라인	한국생활가이드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제작 이후 현행화 • 온라인 배포 • 13개 언어 제공
	한국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제작 이후 현행화 • 온라인 배포 • 13개 언어 제공
	포털 '다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개통 • 방문객 33만 여명 • 13개 언어 제공

※ 출처 : 연도 별 연간보고서 자료 종합_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구분	연도	정보매거진 Rainbow+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 정보 안내 리플릿
인쇄 부수	2012년	280,000부	3,400부	80,000부
	2013년	280,000부		80,000부
	2014년	200,000부	온라인 배포	80,000부
	2015년	240,000부		90,000부
기관 배포	2012년	3,600여 개	260여 개	2,500여 개
	2013년	3,800여 개		3,000여 개
	2014년	4,200여 개	온라인 배포	3,000여 개
	2015년	4,300여 개		3,000여 개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및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 및 교육 지원으로 정보제공사업의 생산 콘텐츠 활용 강화 및 사업 효과성을 제고함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성 강화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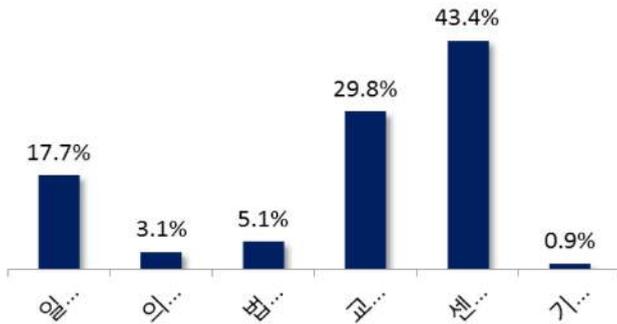
❖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 적응 및 언어차이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흥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컨소시엄 운영으로 통번역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및 이용 현황

통번역서비스 제공 센터 및 전담인원 현황(2015.5.31기준)

구분	정부배정	미실시	미채용	현황
센터 개소 수	199개소	7개소	8개소	192개소
인원	282명	7명	8명	267명

내용 별 통번역서비스 이용률(2015.5.31기준)



※ 출처 : 201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보고서, 제334회 국회 임시회 대외 통계자

언어의 차이가 유발하는 다양한 불편 해소 지원

- 일상생활 및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 의사소통 문제 및 정보공유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인권 보호

서비스 전문성 확보 노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의 컨소시엄 운영으로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 협조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전문성 확보
- 보수교육 운영으로 통번역서비스 제공사례 및 현장 애로사항 공유, 서비스 제공방법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전국 20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과 사업 추진기반 강화를 지원함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5.5.31기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센터 개소 수	173개소	172개소	205개소	206개소	206개소
인원	206명	200명	300명	300명	298명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5.5.31기준)

구분	상담		평가		교육		
	초기 면담 (회)	대상자 상담 (회)	실인원 (명)	연인원 (명)	회기수 (회)	실인원 (명)	연인원 (명)
2014년	5,906	100,363	9,101	25,272	178,149	5,501	187,518
2015년	2,492	40,744	5,026	11,535	72,584	3,974	75,267

※ 출처 : 201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보호서, 제334회 국회 임시회 대외 통계 자료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전문성 강화

- 6~7세 읽기·쓰기 매뉴얼 개발로 업무 표준화
- 신규 언어발달지도사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체계 강화
- 체계적 슈퍼비전 지도 및 확대 언어발달지도사 전문성 향상 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기반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센터 현장지원 및 컨설팅
-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 실적관리시스템 관리·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발달단계별 진전평가에서 진전을 보인 아동의 비율



-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언어 촉진교육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 집단별로 볼 때 특히 영유아기 자녀에서 촉진교육 이후 진전 정도가 높았는데 어린 자녀들의 언어발달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촉진교육을 제공하여 언어발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언어발달의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은 언어발달 정도가 연령이 증가한 이후 읽기 및 쓰기의 문해에도 영향을 주기에 그 효과는 다른 연령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구성 개편(안)_여성가족부(2013)

영역	정착단계			
	기초적응기	사회진출준비기	사회진출기	안착기
언어·문화역량	한국어교육(방문, 집합)	한국역사 교육 취업및사회활동을 위한 언어교육	(해당 요구 있는 경우 진행)	(해당 요구 있는 경우 진행)
부모역할, 가족관계	기초적응상담, 부부간의사소통상담,공동활동 임출산교육 예비부모교육 * 재혼가정_ 학부모 역할을 위한 특별 지원	부모-자녀의사소통상담, 교육, 어머니-자녀공동활동, 아버지-자녀공동활동, 예비학부모교육 *외국성장 자녀 부모 상담, 교육	학부모자조모임, 학부모교육, 학부모 활동 *외국성장 자녀 부모 상담, 교육	학부모자조모임 * 결혼이민자-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자녀성장	(해당 연령대에 맞춰 진행)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상담, 활동, 교육, 서비스 연계	유아기 이중문화 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이중언어역량 교육프로그램, 언어발달지원 * 외국성장 자녀를 위한 상담, 활동, 교육	학령기 이중문화 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이중언어역량 교육프로그램 * 외국성장 자녀를 위한 상담, 활동, 교육	자녀 상담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사회활동	결혼이민자 선-후배 멘토링 지역생활 오리엔테이션	사회활동 준비 교육, 자원봉사활동, 진로관심별 자조모임	학교 등 자원봉사, 강의활동 연계, 선배 멘토 교육 및 활동, 단체활동 연계	단체활동 연계
취업		직업세계 탐색, 취업진로 설정 컨설팅, 기초직업역량훈련, 인턴쉽 * 성년기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	취업훈련(기관)정보 제공	직업훈련(기관)정보 제공

2. 다문화가족 사업현황 분석

❖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한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 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 업무 상 필요도가 높은 대상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 내용의 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함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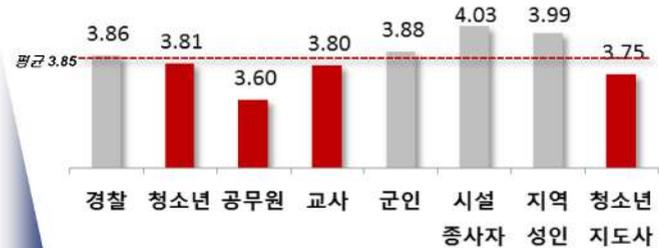
연도 별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5. 31 기준)
교육 회차	565회	165회
인원	26,990명	13,49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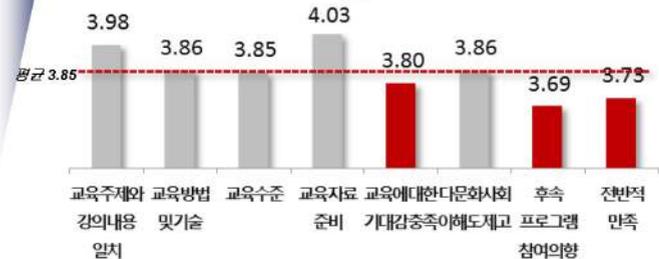
연도 별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위촉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189명	154명	241명

<교육대상 별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



<세부 항목 별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 >



※ 출처 : 연도 별 연간보고서 자료 종합_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기냐?

- 다문화인 차별발생
- 다문화사회 부적응 발생
- 사회적 분열과 혼란발생
- 국가경쟁력 하락

기회냐?

- 국민적 다문화 인식제고
-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증가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력제고
- 사회 및 국가 경쟁력 상승



3. 다문화가족 정책 및 서비스 방향도출



❖ 국내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증가, 자녀성장, 중도입국자녀 증가, 결혼이민자의 역량증대, 다문화감수성 확산, 공생·공존의 세계관 요구 등 다문화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가 증가

경제 · 사회 환경변화

외국인가족 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관심 증가

현안

이주배경 가족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국제결혼가정 중심의 다문화가정의 문제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
- 중도입국자녀 문제,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해체 증가
-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으로 인한 가족정책 요구도 증가
- 국가적 성장을 위한 미래 다문화전략 필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다문화 인식

- 다문화 가족,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로 국내거주 외국인 증가
- 다문화 가정 자녀 성장, 외국인 범죄 등으로 인한 인식저하 등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현안 대두

국내 거주 외국인 가족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국제결혼은 감소추세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급속히 증가
-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가족의 결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정책서비스 사각지대 여전

국가적 성장을 위한 다문화정책 발굴 요구증대

-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 다문화전략 관심 증대
- 서비스 통합과 대상자 확대 관심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노력 필요

- 다문화 가족 중심의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 주도
- 다문화 사회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결혼이민자 한국정착 성공 스토리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교사의 꿈 포기하고 공장취직
한국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
지인 소개로 결혼, 아이를 낳고 살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의 권유로 통번역지원사로 일하다가,
경북도와 도내 대학지원으로 사회복지학과 졸업.

베트남 통번역사로 거듭난 그녀는 **베트남 관련 정부와 지자체 업무에 유능한 통역사로 활동.**

동시에,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돕고, **자조모임 리더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 기업 지원 주말학교 '모두' 에서는 다문화가정 2세들을 위해 베트남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로도 활동

베트남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토론자료

.....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김재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팀장)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김재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팀장)

다문화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 주민¹⁾은 1,741,91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3.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2014년 1,569,470명보다 10.9% 증가한 수치이며, 2006년 536,0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세배 가량의 외국계주민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대비 약 1.4%로 전년대비 14,730명(21.7%)이 증가한 82,536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60,283명, 중학교에 13,865명, 고등학교에 8,388명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15).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화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도 이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중도입국 자녀’²⁾),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무국적 자녀³⁾ 포함), 난민,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가정 자녀 등 다문화청소년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들을 부각시키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본 토론을 위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를 통해 이러한 몇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에서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자녀를 통칭하여 외국인 주민이라고 한다. 외국인 주민은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그 자녀’를 일컫는다(행정자치부, 2010).
- 2) 정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기 이전에 출신국 남성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중도입국 자녀’로 칭하고 있다(교육부, 2010).
- 3) 부모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경우 한국 출생 자녀를 신고할 마땅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아동으로 남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보통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국내태생 다문화청소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인의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장한 환경과 자신이 경험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 주로 한국인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연구들이 제1언어(모국어)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적인 변인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중 많은 수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정체성을 위협을 경험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한국인이라고 믿고 있거나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다문화청소년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적 환경인 학교에서 타자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이 다문화가정임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자신이 '다문화'로 불리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겪는 감정적인 혼란, 당혹감 등이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문화라고 한다.'라고 토로하는 아이들은 어떤 해답을 찾게 될지 걱정이다.

두 번째는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본 토론문에서 사용하는 '이주민의 정체성'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중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외국인가정의 청소년(외국인노동자가정의 청소년 포함)과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청소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청소년은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한국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 정체성이 일부 형성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가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정주가 아닌 체류 목적을 이루고 난 후 본국으로 귀환을 예정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더욱이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한국에서 겪은 차별과 편견 같은 부정적 경험들은 아이들의 '이주민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학교나 일상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전에 귀화인터뷰를

앞둔 중도입국청소년이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한국사람이 되기는 싫다는 것이었다. 김치도 잘 먹고, 애국가를 4절까지 외우고, 군대도 가졌다면 이 친구는 더 이상 중국사람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엄마의 권유 때문에 억지 준향이 된 심정으로 귀화를 하게 된 후에도 주변사람들의 “한국사람이 됐으니...”, “이제 한국사람이니...”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은 한국사람도 중국사람도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경험을 계속해야만 했다.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중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본 세미나의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었던 “한국계-미국인”이 대표적인 이중정체성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발표문에서도 최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2세 어린이들이 ‘한국계-미국인’이라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미국의 복수문화주의로 인한 활발한 한국문화활동, 다른 한인과의 접촉 기회 증가 등을 들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중정체성 또는 복수정체성(아시아인과 같은 탈국가적 정체성의 개념)이 우리 다문화청소년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민족정체성이라면, 그 변화의 시작은 가정부터라고 생각한다. 가정 내에서 외국인부모의 출신국과 그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고 아이가 또 다른 모국에 대한 이해 또한, 국민 모두가 타국가에 대한 폄하적이고 비하적인 태도를 버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다문화청소년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상처받지도 훼손되지도 않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